

'2025년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개시

소상공인·소기업 금융지원 3월 개시, 총 330억원 규모

전주시가 올해도 고금리와 고물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전주지역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은행, 전주시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전주시 장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한중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현권 전북은행 부행장 유장명 전주시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전주시와 기관 출원금을 재원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고, 금융기관에서 경영자금을 대출하는 제도이다.



시와 전북은행,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이날 협약에 따라 오는 3월부터 2025년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 을 개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은행과 협력해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까지 2년간 총 17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계속했으나, 지속되는 소상공인·소기업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

려해 올해 전북은행과 함께 24억 원을 추가 출연해 33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사업 규모는 이번 확대분을 포함해 총 2000억 원 규모로 늘어나게 됐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전주시 내에 소재한 업력 3개월 이상이고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인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업체당 소상공인은 최대 7000만 원, 소기업은 1억 원 이내(신용보증재단 기 보증금액 포함 소상공인 1억 원, 소기업 1.5억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대출 기간 5년 중 3년 동안 대출금리 연 3%를 지원해 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산정된 대출금리는 연

5.5%(기준금리에 따라 변동) 수준으로, 시가 연 3%의 이자를 지원해주면 고객 부담금리는 연 2.5% 수준이다. 상담을 원하는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은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사업장 및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이 임대사업자인 경우)를 지참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가 완산구일 경우에는 전북신용보증재단 본점(063-230-3347)을, 덕진구일 경우에는 덕진지점(063-230-3385)을 각각 방문하면 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아직도 많은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이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들과 소기업들이 위기를 이겨내고, 성장·발전을 이뤄내 전주시 경제가 하루빨리 활기를 되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북지역 상공인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고 전북 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는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전북상협, 신기업가정신 공동선포

전북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기로

전북지역 상공인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고 전북 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는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전주 익산 군산 전북사남상공회의소의 협의체인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는 지난 25일, 상의 회장 및 사무국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기업가정신 선포식'을 갖고 전북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다. 신기업가정신 실천은 기업의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전국상공회의소와 회원기

업들의 참여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선포식에 참여한 상의 회장들은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구성원 존중 △친환경 경영 △지역사회와 상생이라는 5가지 실천 명제가 담긴 기업선언문에 직접 서명하고 회원기업들과 함께 적극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김정태 전북상협 회장은 "지금까지 기업의 역할로 인식되어온 이윤과 일자리 창출, 납세를 통한 국민경제 기여 등을 넘어 현대 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디지털전환, 팬데믹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김옥기기자

새만금청,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구현 '드림팀' 출범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26일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 새만금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구현을 위한 협력을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관련분야 최고의 전문 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드림팀'을 결성하고, 스마트 미래 공간 조성을 위한 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드림팀에는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교통연구원 등의 관련 연구자들이 참여, 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교통학회, 한국지리정보학회 등 관련 학회의 전·현직 회장들이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산·학·연 전문가 협의체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드림팀에서는 새만금지역에 대한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최첨단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위한 도시 기반 시설을 구축하며, 새만금 메가시티의 새로운 모빌리티 연결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실증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으로 새만금 지역의 스마트 도시 발전이 가속화되며, 미래 모빌리티 기술이 세계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국책사업인 새만금 스마트 도시의 기본적인 구상을 위해 현대자동차그룹과 전문가가 제시하는 미래 도시의 모델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

“조합의 숙원사업 ‘물류센터 확장’, 반드시 달성”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제36차 정기총회 아름다운컨벤션웨딩서 열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이 정기총회를 통해 전북 거점형 중소 유통도매 물류센터로 도약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며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박천관)은 26일 오전 전주 아름다운컨벤션웨딩 1층 펠리시타홀에서 제3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정승원 전주시 민생사회적경제과장 등 내·외빈과 조합원 등 7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이 자리에서 2024년 사업실적과 함께 2025년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지난 2007년 개장한 전북 전주 수퍼조합은 2023년까지 16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경제 침체의 여파로 지난해 처음 5% 이상 매출 하락의 시련을 겪었다. 조합원들의 니즈를 수시로 파악해 제철 과일과 인기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정기적인 할인 행사도 기획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동네마트 방문을 감소 등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온라인 유통과 대기업의 편의점으로 이어지는 골목상권 침체까지 겹쳐 지난해 매출이 20여억 원 정도 빠져나간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전북 전주 수퍼조합은 전문 인력 지원 사업과 동네 단위 유통채널 구축 사업 등 정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조합 내 공동브랜드 '우리 동네 수퍼마켓'을 런칭했고, 가맥 특화 안주로 선보인 '직화 닭발구이'와 '직화 닭곱창구이' 등 PB 상품을 선보이는 등 신사업 추진을 통해 향후 매출 상승의 기반을 다진 한 해로 평가받기도 한다. 박천관 이사장은 "지난해 재도약의 기틀 마련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발굴된 공동브랜드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 특화 마트로서의 컨셉을 '가맥안주 특화'로 정해 모델숍 2곳을 선보임으로써 지역 동네마트들이 대기업 편의점에 도전하는 당찬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2025년 전북농협 축산경제 사업추진 전략회의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지난 25일 농협전북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관내 축협 지도·경제 상무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축산 기반 구축을 위한 '2025년 전북농협 축산경제 사업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축질병 예방 및 차단방역활동 강화, 맞춤형 축산 컨설팅으로 농가민족도 제고, 전북축산물 마케팅 지원, 한우 가격 안정화 대책 적극 추진, 가축개량 축진을 통한 농



가소득 증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정환 본부장은 "한우가격 하락으로 각종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럴 때 일수록 축산농가 및 조합원들과 가장 접점에 있는 축협 임직원들이 제 역할을 다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줘야 한다"며, "가축질병 및 재해피해 예방과 소이력제 관리, 원산지, 유통기반, 식육포장처리 준수사항 점검 등 식품안전 강화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만호 기자

LX, 공공데이터 활용 데이터기반행정 '우수'

LX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3년 연속으로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정책 이행 수준 점검을 위해 실태평가로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등 5개 영역 16개 지표를 점검한다. LX공사는 개방데이터 확대와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 노력에서 만점을 받는 등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 개방에 적극 노력을 인정받아 해당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메타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개방계획에 의한 누적 이행률 100% 달성과 데이터 제공 주기·신청 및 오류의 적기 처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LX공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에서

도 데이터 분석 및 정책 활용,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최고등급을 달성하여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LX공사는 해당 평가에서 데이터를 기반한 문화가 공공기관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활용 △데이터공유 △관리체계 등에서 노력을 인정받았다. LX공사 어병소 사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데이터 중심 행정 문화가 자리 잡은 성과다"며 "앞으로 고수요 데이터 제공 확대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공간정보분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X공사는 민간 활용도가 고품질 데이터를 '공간데이터마켓(gomarketr)'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LX공사 홈페이지(lx.co.kr)에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증진을 위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김옥기기자

